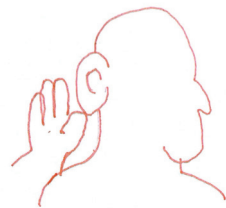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기



양천해누리복지관 지음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기

양천해누리복지관 지음

초판 인쇄 2025년 12월 05일

초판 발행 2025년 12월 10일

지은이 양천해누리복지관

펴낸이 신현운

펴낸곳 연인M&B

기획 여인화

디자인 이희정

마케팅 박한동

홍보 정연순

등록 2000년 3월 7일 제2-3037호

주소 0505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3(자양동 628-25) 동원빌딩 5층 601호

전화 (02)455-3987 팩스 02)3437-5975

홈주소 www.yeoninmb.co.kr

이메일 yeonin7@hanmail.net

비매품

© 양천해누리복지관 2025 Printed in Korea

* 본 워크북의 저작권은 양천해누리복지관과 참여자에게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 활동에서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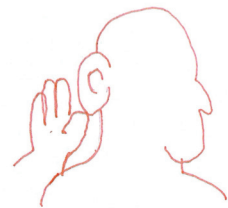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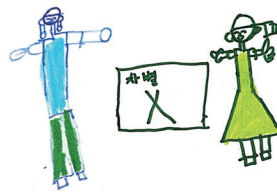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기



양천해누리복지관 지음



계절





여는 말

안녕하세요.

이 워크북은 양천해누리복지관 옹해야(옹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모임에서 만들었습니다. 옹해야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워크북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워크북을 펼치는 여러분이 발달장애인의 삶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양천해누리복지관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기’를 함께 만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중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보고 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옹해야를 하며 저한테 중요해진 건 인권,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크북 책으로 보면서 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웅희

“저는 미성입니다. 카페에서 일합니다.

옹해야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해요.”

최미성

“내 이름은 배시현. 평범하다.

옹해야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알려 주고 신분증

보여 주면 안 돼요. 개인정보 안 돼요.”

배시현

“저는 허봉희 청년입니다.

선생님께서 한 번 옹해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인권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페이스북,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해요!”

허봉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민아입니다. 제 나이는 스물다섯입니다. 저는 사회 잘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화장입니다. 옹해야 하는 이유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했습니다. 랜덤채팅 위험, 개인정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조심하라고 이야기 해줘야 해요.”

문민아

“저는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 피해 본 게 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옹해야는 자기 권리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분들이 피해 보지 않게 이야기해 줘요. 옹해야는 즐거워요.”

이현준

“저는 옹해야를 2년 정도 했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어색할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가까워지고 좋았어요. 옹해야가 사교성을 길러 주었어요. 사람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걸어 보는 것... 다른 사람들도 옹해야를 통해 사교성을 높여 가면 좋겠어요.”

이성희

“저는 속도는 느리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옹해야는 서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북은 우리를 소개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옹해야는 배움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분명 당신만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김민아

여는 말 3

함께 알아보기

- 1. 처음 만나는 발달장애인 8
- 2. 발달장애인 더 깊게 이해하기 9

인권 보따리

- 3. 인권 선언 11
- 4. 길 찾기 11

인권 보따리

- 5. 같이 풀어 보는 인권 퀴즈 12

우리 모두 경계존중

- 6. '경계존중'이란? 13
- 7. 동의 구하기 13



안전한 온라인 이용

8.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14
---------------------	----

더 생각해 보기

9. 오늘의 권리!	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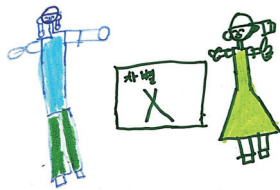
10. 생각 온도계	17
------------	----

표지그림 설명	18
---------	----

옹해야가 해 온 일

2023년 제작 유튜브 영상	21
-----------------	----

2024년 제작 인권 그림책	21
-----------------	----



2. 발달장애인 더 깊게 이해하기

발달장애인을 더 알고, 더 이해하고, 더 기다려 줍니다.

다음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1. 직장이나 복지관에서 수업을 할 때 제게 반말로 “집중해야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해요.

♣ 반말로 명령하듯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인인데 어린이 대하듯이 해서 속상해요. 나이에 맞게 대우를 해 주면 좋겠어요.



#2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지 빨리 말해 달라고 해요.

♣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메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 알아보기

#3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나 직장에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OOO으로 말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라고만 이야기해요.



♣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허락없이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오직 발달장애인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4 제가 장애가 있다고 무시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도 잘 안 들어줘요. 나중에 취업도 못할 거라고 말하고, 친구가 없다고 놀리기도 해요.



♣ 저는 장애가 있어도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어요. 저를 무시하지 말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줬으면 좋겠어요.

인권 보따리

5. 같이 풀어 보는 인권 퀴즈

◆ 인권과 관련된 문장에 동그라미 하세요.

- () 다른 사람 말을 존중해요.
- () 상대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요.
- () 모두에게 같은 방식은 없어요.
- ()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 ()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 () 내 개인정보를 잘 지켜요.
-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 ()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쓸 때 다른 말로 바꿔 주세요.

- ① 결정장애 _____
- ② 장님 _____
- ③ 병어리 _____
- ④ 정신분열 _____

우리 모두 경계존중

6. '경계존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행동도 상대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 여러 가지 경계

- 신체 경계 : 경계는 나와 너의 몸을 지켜 줍니다. 누가 내 몸을 함부로 만져서 기분이 나쁘면 거절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 마음의 경계 : 같은 일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 온라인 경계 :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를 이용할 때도 경계를 지켜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댓글을 쓰지 않도록 해요. 나에게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리지 않습니다.

7. 동의 구하기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갈 때는 먼저 물어봐야 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몸, 마음, 온라인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폭력'이 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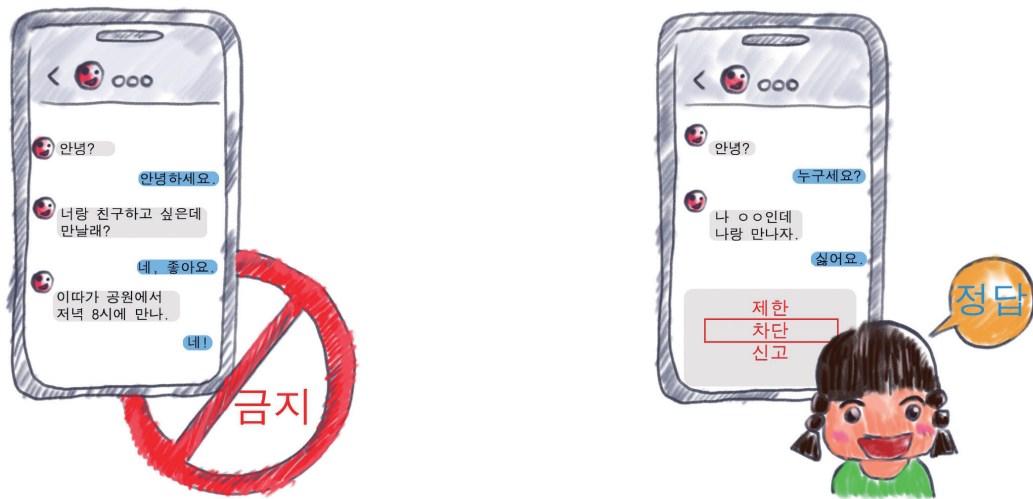
안전한 온라인 이용

8.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

※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이어 가다 사기나 성착취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친구'라고 인식하며 신뢰하는 경우, 피해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 채팅으로 친해진 뒤, 돈을 보내라거나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면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반드시 거절하도록 알려 주세요.
-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 사진이나 영상 파일은 절대 보관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 불법 촬영물을 같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누가 다른 사람의 몸과 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보냈어요. 온라인에서 내 몸, 얼굴을 보여 주고 돈을 달라고 협박해요. 기분이 나빠요.

#2 채팅방에서 친해진 사람이 성기, 성관계,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내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도 많이 왔어요.

#3 만남 어플을 통해 처음 연락하고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로 했어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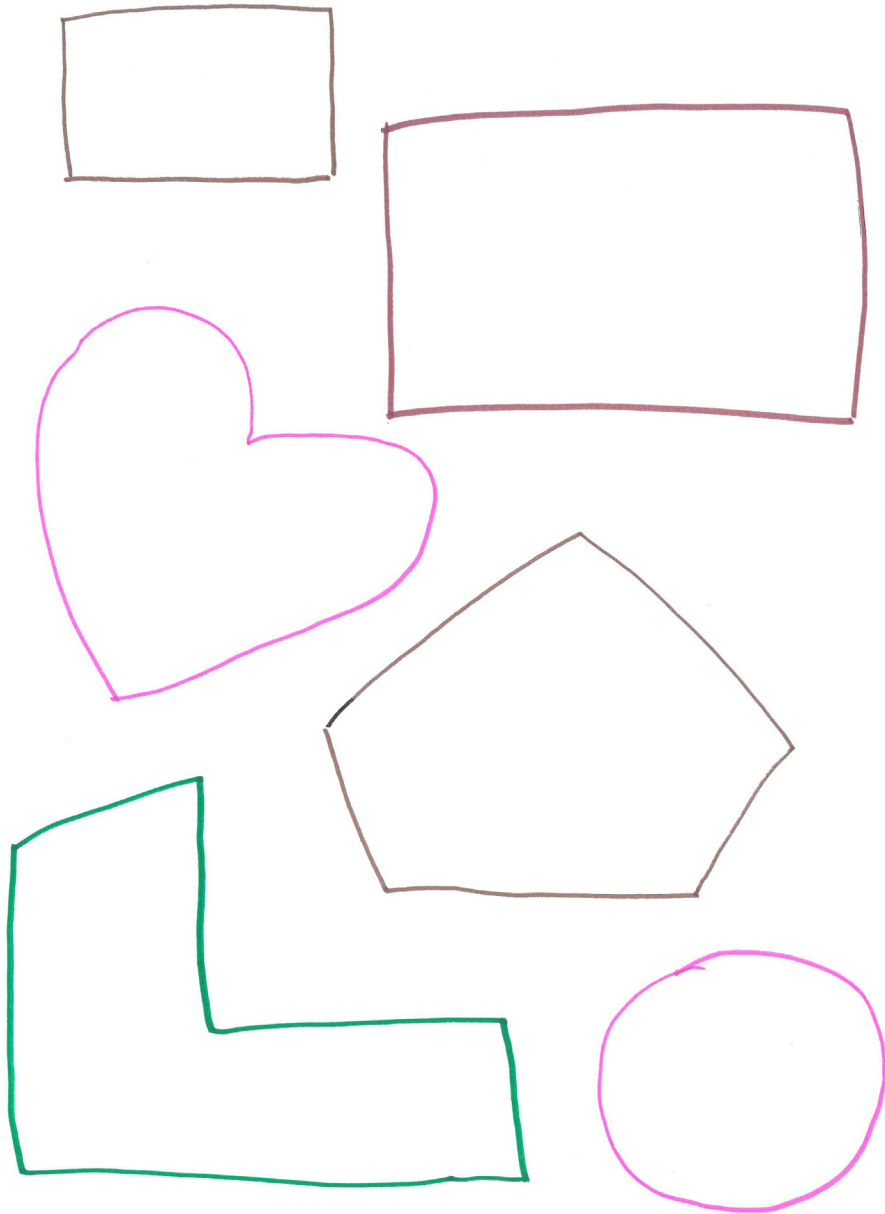
#4 돈을 불러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고 해요. 100만 원만 보내면 500만 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대요. 제 계좌번호도 알려 달라고 해요.

더 생각해 보기

9. 오늘의 권리!

이번 주 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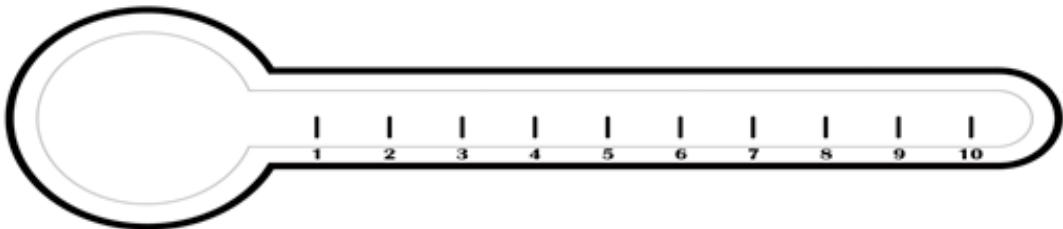
내가 한 활동에 “이름”을 붙여 보아요.



10. 생각 온도계

오늘 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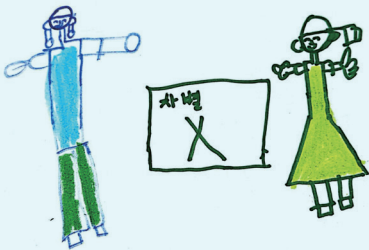
얼마나 바뀌었는지 온도계에 그려 보세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그 이유도 써 보세요.(1도는 '똑같다', 10도는 '많이 달라졌다')



표지그림 설명



“이 그림은 선인장이에요.
삐죽삐죽한 제 모습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생겨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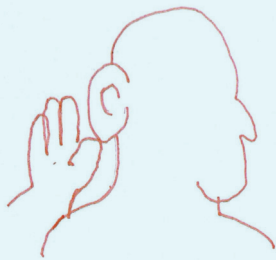
“함께 살아가야 해요.
우리 서로 포옹해요.”



“내가 다니고 싶은 곳을 가요.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거절

“하기 싫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정보는 중요해요.
핸드폰 번호. 통장 계좌번호. 집 주소.
함부로 알려 주면 안 돼요!”

옹해야가 해 온 일

옹해야(옹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는 2023년부터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인권 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교육을 듣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바로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과 인권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권익옹호를 실천해 가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전하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정성껏 만든 자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제작 유튜브 영상



[발달장애인 응해야] 1. 열심히 번 돈은 내가 지켜요!



“열심히 번 돈은 내가 지켜요!”

잘못된 계약, 사기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했던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이상한 문자 클릭 방지, 개인정보 비공개 등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 전달



[발달장애인 응해야] 2.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가정, 시설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던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알기, 사회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발달장애인 응해야] 3. 나도 행 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나도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랜덤채팅 사용, 그루밍 성범죄 피해 등을 경험했던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 가해자들에게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전달

2024년 제작 인권 그림책



“선을 넘지 마세요”

일상 속 '존중과 경계'의 중요성을 다루는 이야기
발달장애인도 일상에서 감정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발달장애인이 함께 만든 인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나눈 말, 우리가 그린 그림,
그 안에는 우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인권은 살아납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도록 응원합니다.
존중받는 경험이 일상이 되고, 자기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